



전승현 재경진안군민회장, 동향면에 후원금 기탁

재경진안군민회 전승현 회장은 지난 30일 동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계현, 이철식)에 고령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재경 항우회원 80여명과 함께 제12회 진안고원 수박축제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며 전달식이 이루어졌다. 전승현 회장은 “언제 어디서든 고령 진안에 대한 애정한 심정을 늘 가슴에 품고 산다”며 “고령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복지와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계현 면장은 “‘한년만에’ 재개된 축제에 많은 항우회원들과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것과 더불어 뜻깊은 후원금까지 기탁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마을복지로 추진 중인 행복대하기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어린이창의체험관 인형극 열려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22년도 찾아가는 인형극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의 주최로 7월 18일(개끗한 것이 삽어), 27일(마비 메가파워)에 인형극을 개최하였다. ‘찾아가는 인형극’은 어린이창의체험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형극단이 공연을 희망하는 시·군으로 직접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인형극을 통한 문화생활 할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순회공연이다.

김제시는 ‘깨끗한 것이 삽어’와 ‘마비 메가파워’에 응모 선정되어 사전에 관내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관람 신청을 받아 9개소, 공연을 선보여 많은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 관촌면, 재난안심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관촌면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난에 취약한 세대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분말소화기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화기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집이 노후화되어 화재 위험이 많아 걱정이 많았는데, 소화기를 준비해 놀 수 있어 안심이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명진 관촌면장은 “이번 재난안심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화재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군, 포도 전문가 역량 향상 교육 실시

진안군은 1일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교육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품종 포도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신품종 포도 재배에 관한 교육 수료가 끝나는 것에 부응하고 진안군 포도 산업 발전 및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은 ‘유럽종 포도 특성별 재배관리’란 주제로 블랙시파이어, 루비로망, 사인미스캣을 중심으로 유목관리, 병해충 생리장애, 전정기술 등 집약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다.

교육생들은 기준 포도재배 농가, 친환경포도 연구회 회원, 영농정책 회망자 등 다양해 포도 신품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자대한지 알 수 있었다.

/진안=우태민 기자

## 청소년들 스스로 디자인한 여행 즐기다

전주시 야호학교, 여름방학 맞아 ‘나를 찾는 아카데미’ 진행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더 나은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한 여행을 즐겼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1일 청소년들이 팀별로 스스로 디자인한 여행을 즐기는 ‘나를 찾는 아카데미’(이하 ‘나찾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야호학교 나찾아 행복한 성장기’의 출발일인 ‘여행’이라는 팀은 이날 전남 여수시를 찾아 스마트폰 플랫폼 디스플레이 등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찾아보고 장소마다 다른 다양한 테마를 구경하며 디자인 연출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위기를 겪는 해양생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대회를 나누기도 했다.

‘여행’이라는 팀은 ‘야호학교 행복한 성장기’라는 뜻으로 청소년들이 지은 이름이다.

오는 6일에는 ‘각 드가자!’ 팀이 부산광역시에서 디스플레이 부산 아쿠아리움 △국립부산과학관 △스카이라인 루지 △동아항을 방문해 생생한 해양 생물 및 생태 계현장을 체험하고,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전시물을 느낄 계획이다.

야호학교는 이 여행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 경쟁하고 소통하며 팀 협동력을 향상시키고 주도적인 실천과



실행으로 여행의 성취감과 민족감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여행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코로나로 여행을 많이 못 가봤는데, 친구들과 함께 직접 기획한 여행이라 설렌다”면서 “올여름 가족여행은 내가 책임지고 기획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야호학교 관계자는 “여행의 과정 속에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서 “어디를 갈지, 어떻게 갈지, 그리고 표를 예매하고 식사를 정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부딪쳐보면서 내 인의 나를 찾기”는 자기 확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전북체육회, 레슬링 전국 대회서 맹활약

전북체육회는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학 레슬링대회에서 전북 선수들이 메달을 대거 획득했다고 밝혔다.

먼저, 여자 일반부 경기에 나선 이한빛(완주군청)은 자유형 63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손세련(완주군청)은 자유형 53kg급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진안중 남성광은 자유형 39kg급과 그레코로만형 39kg급 모두 석권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그레코로만형 45kg급에 출전한 한우진(진안중)도 금메달을 차지했고, 같은 학교의 윤광민은 자유형 111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군산 산북중 오은혜(여)는 자유형 53kg급에서 은메달을, 김경호는 자유형 110kg급에서 은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정은성기자

## 전북교총, 교육가족 캠프 무주 태권도원 일원서 개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지난 7월 28~29일 이를 간 무주태권도원 일원에서 제2회 교육가족 캠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시·군 지역에 참여한 이번 캠프는 교사와 학생의 가족 캠프운영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스스로 해결해 보는 동기 부여를 갖고자 교사와 자제 혹은 제자로 이뤄진 2인 1팀을 각 시·군교총에서 추천받아 진행했다.

교육가족들은 행사 첫날 등록 후 태권도원 전통무예수련장과 상징지구 탐방을 시작으로 교육가족별 분반과 합반으로 진행했다. 교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이해준 전문 강사의 강연을 듣고 학생들은 태권도원의 험프라운체조를 2시간 동안 했다. 이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공동체 놀이



로 다양한 태권도 연계활동이 이뤄졌다. 캠프 2일차는 태권도원의 여러 부대 시설을 둘러보고, 노도태일 탐승을 시작으로 태권도원의 자랑 태권도 공연을 관람했다.

/정은성기자



진안 백운면-아름다운노인병원,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 백운면행정복지센터(면장 곽동원)는 완주군아름다운노인병원(원장 소광)과 지난달 29일 치매 예방, 진단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검진지원, 치매 예방교육, 공공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협약에는 노인인구가 면민의 40%가 넘어선 백운면내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치매검진서비스,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주민교양,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치료를 위한 공공보건사업 등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면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7월 초 백운면민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하는 주민주도 노인통합돌봄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될 경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곽동원 백운면장은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치료와 발견이 중요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 기관 단체 등이 뜻을 모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지원을 약속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장수군산악연맹, ‘체육회장배 군민활성화 등반대회’ 개최

장수군산악연맹(회장 이순창)은 30일 장수군민의 등산 활성화와 장수군산악연맹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2022년 장수군체육회장배 군민활성화 등반대회를 장수승로마로드 구간에서 실시했다.

장수군체육회 주최, 장수군산악연맹 주관, 장수군·전라북도 체육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장수군산악연맹 등호인들의 친목과 장수군민들의 건강한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김병열 장수군체육회장, 정강선 전라북도 체육회장, 최훈식 장수군수,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박용근 도의원,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 김광훈 산업건설위원장, 김남기·김남수·유경자 장수군의원을 비롯해 정재철 진안군산악연맹회장과 임원, 한병태 장수문화원장, 이미자 장수군자원봉사센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

최훈식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장수군 지향은 75%가 산악



지형으로 장수더유산, 경진안, 팔공산 등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많은 산들이 있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 남원 향교동 새마을지도자협, 밀반찬 90가구 전달

향교동 남녀새마을을 지도자 협의회(회장 조용봉 정금이, 이하 ‘협의회’)는 최근 지역 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균형 잡힌 식사와 임맛 둘째를 위한 밀반찬 90가구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지회사업 공동체 사업비(임미찬스 밀반찬) 200만 원과 회원(임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100만 원으로 마련됐다.

무더위로 임맛을 잃기 쉬운 계절에 스스로 식사 창기기에 어려움을 겪는 흠로 사시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밀반찬(오이지, 김자반, 젓갈 등) 90묶음을 회원들이 조리, 일부 인사와 함께 전달한 것

협의체 관계자는 “회원들 모두가 바쁜 일정을 조개 마음을 담아 준비한 믿음 임맛도 되찾고 건강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제13회 남원시장기 전국 탁구대회, 성황리 마무리

제13회 남원시장기 전국탁구대회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 까지 2일간 춘향골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체육회와 남원시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대회는 약 250팀 1,000여명의 등호인이 참가해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걸고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경기방식은 단체전과 개인 단식이 조별경기를 통해 11점 5전 3선승제로 예선을 진행해 본선에서 토너먼트 11점 5전 3선승제로 우승자를 가렸다.

남원시장 최경식은 “향후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의 추가 유치를 통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만전을 다 하겠다”며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불편함 없이 경기를 치른 후 남원시에서 좋은 추억과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밖에도 8~10월 중에 전국 킥복싱 대회, 전국 검도 대회 등 급진적인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를 연이어 개최 할 때 따라 요식업을 비롯한 지역 상가의 이용고객 및 숙박업소의 예약률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기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